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도립미술관 제주미술사 연구 어디쯤 왔나

제주미술사 정립 위한 미술관 체계 갖춰야

지역미술사 관련 기획전 계획없이 들쭉날쭉 양산
지난해 제주 작가 탄생 100주년전도 소극적 운영
소장품 수집·관리할 전담 학예인력 배치 등 필요

2년전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미술사'의 대표 작품 찾기에 나섰다. 부산미술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경남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작고·현존 작가의 대표 작품을 공개 수집했다. 2018년 개관 20주년 기념전에 맞춰 부산미술사를 정리·복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된 일이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이를 포함해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2부로 나뉜 부산 근현대미술의 유산을 조망하는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이면 개관 10주년이 되는 제주 도립미술관은 어떤가. '제주미술사 정립'을 미술관의 주요 목표로 정해 놓았지만 적어도 기획전으로 드러나

는 결실은 미미하다.

▶예정에 없던 제주미술사 관련 기획전 등장=지역 공립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지역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이다. 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역미술사 자료를 캐내고 다듬으며 한국미술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미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립미술관은 '제주미술사'라는 큰 흐름 아래 기획전을 펼쳐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개관 이래 지금까지 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제주미술사 관련 기획전은 보면 삼다이야기-바람(2010), 양창보 유작전(2011), 제주작가의 3인(김영

철 김영숙 김남흥) 3색 이야기(2012), 삼다이야기(김병희 문장배 이창희)-돌(2014), 강요배전(2016), 강광전(2018) 등이 있다. 제주 원로·작고 작가나 청년 작가 전시가 들쭉날쭉하고 주제 역시 제주미술사 정립으로 모아지지 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강광 초대전은 2018년 도립미술관 주요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전시다. 제주미술사 정립과 관련한 기획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제주미술제 통해 새로운 계기 만들 것"-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립미술관에서는 탄생 100주년 기념 송영욱전이 열렸다. 송영욱은 제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해 정착한 재일 1세대 작가다.

하지만 이 전시는 도립미술관이 기획을 맡은 게 아니라 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 컬렉션 순회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립미술관이 제주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작가에 대한 조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도립미술관은 그동안 제주미술사와 관련한 작품을 꾸준히 수집해왔다. 올해도 제주미술사 등과 관련 도립미술관에 3억원의 작품 구입비가 배정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미술사 연구는 학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다. 다른 지역 공립미술관들이 지역미술에 무게를 두고 미술관의 정체성을 그려가려는 모습과 대조를 보인다.

이에대해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오는 11월 제주 미술계를 아우른 제주미술제가 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향후 제주미술사 정립을 위한 자료 수집과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파고넘은 제주사람 생애사 담긴 질그릇

서귀포에당 내달까지 기획전
제주도 용기장 작업 등 소개

불과 흙을 만지며 제주전통옹기 복원을 위해 달려온 도공들의 여정이 전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이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대표 허은숙)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 질그릇-제주사람, 삶의 역사' 전이다.

16일 시작돼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획전은 2008년 창립 이래 한길을 걸어온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발자취를 풀어내는 자리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 용기장인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 굴대장의 완전한 기술 복원을 위해 힘써왔다.

허벅 등과 같은 제주전통 옹기는 일반적인 도자기 제조과정과 달리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성질이 조화롭게 뒤섞여 만들어진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

어주는 공동체정신과 분업화된 작업이 협업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탄생한다.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측은 이같은 제주옹기를 두고 "제주인의 삶의 결정체"라고 했다.

이번 전시는 제주옹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짜여졌다. 제주도 용기장들의 작업과정 소개, 전수자 작품 등을 유물, 사진, 기록영상, 설치작품 등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의 064)760-3341. 전선희기자



대항

원로예술가 조명·지역 예술사 정립 첫발

제주문예재단 첫 지원사업서
한기팔 부현일 강영호 강만보
4인 선정해 작품세계 등 정리

제주 원로 예술가의 작품세계와 생애사를 조명하는 사업이 첫발을 뗀다. 제주도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은 최근 70세 이상 제주 원로예술가 지원사업 후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주예술계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으

로 활동해온 문학 한기팔, 미술 부현일·강영호, 사진 강만보 작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작가 개인의 예술적 성취와 아카이브, 생애사를 망라한 작업으로 지역예술사 정립의 기초자료를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주문예재단은 이들 원로예술가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전문연구진을 구성해 생애사 구술채록, 아카이브, 전시·작품집 발간 등 회고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라고 했다.

한기팔(81) 시인은 1975년 월간 시전문지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래 8편의 시집을 냈다. 예총서귀포지부장, 문인협회제주지회장,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 등을 지냈다.

부현일(80) 작가는 서울대 회화과(한국화 전공)를 졸업했고 제주도 미술학부 교수로 26년간 후학 양성에 힘썼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장, 제주도립미술관장을 역임했다.

강영호(73) 작가는 홍익대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25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한국미술협회제주지회장,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장을 맡았다.

강만보(70) 작가는 '영 허령 살아왔다', '서해안의 제주해녀', '제주동자석·일본지장석', '한국해녀' 등 제주의 민속과 생활사를 꾸준히 기록해왔다. 한라일보 사진부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장 등을 거쳤다. 문의 064)800-9152. 전선희기자



김지형의 '그녀의 수트(the jungle)'.

제주 미술모임 연 정기전
9명 '오.일록 도로 넘어'

미술을 사랑하는 인연으로 만난 제주 미술그룹 '연(緣)'이 '오.일록 도로 넘어'란 이름으로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정기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엔 김다정 김민재 김지영 김지형 신승훈 양정임 오경수 한향선 현덕식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제기발랄, 젊은 감각이 일러진 작품으로 제주와 일상을 그림에 풀어냈다.

전시는 이달 19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60-3573. 전선희기자

“서귀포 이추록 변헌 거 보였수과?”

고영일·경대 부자 사진전
21일부터 '문화공간 와반'
보목·사계 등 25점씩 전시
“위치 모르는 작품 도움을”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던 장소를 찾아 다시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며 “이추록 변헌 거 보였수과?”라고 했던 제주 고경대 작가. 그가 이번엔 서귀포 사람들에게 똑같이 묻는다. 서귀포시민연대의 '문화공간 스토리 와반' 초대로 이달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서귀포 사진전-이추록 변헌 거 보였수과?'전을 갖는다.

고경대 작가는 2011년부터 부친인 고영일(작고) 작가의 1960~1970년대 제주 사진 속 장소에서 동일한 앵글로 현재의 모습을 담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그 작업의 결과물과 아버지의



서귀포항을 촬영한 고영일(왼쪽)·고경대 부자의 사진. 세월의 변화가 느껴진다.

작품을 한데 모아 사진집을 냈고 서울과 제주에서 잇따라 전시도 열었다.

이번에는 서귀포의 어제와 오늘을 촬영한 사진을 선보인다. 보목리, 서귀포항, 자구리포구, 베린내 옛마을, 군산, 사계리, 산이수동, 모슬포 등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 25점씩 나란히 걸린다.

고 작가는 “촬영 장소를 확인하지



못한 아버지의 서귀포 사진 20여점을 소개하고 그곳이 어딘지 서귀포 사람들에게 물어볼 예정”이라며 “서귀포 옛 모습을 보고 지금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문화공간 스토리 와반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농협 건물 지하 1층에 있다. 개막 행사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64)762-0615. 전선희기자

뮤지컬·오페라 감상교육
서귀포에당 꿈다락학교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다음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꿈다락토요문화예술학교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술마당 뮤지컬·오페라 감상교육' 참가자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오페라 감상

을 통해 종합예술분야를 분석하고 오페라와 뮤지컬의 역사,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 노래 등을 배우며 뮤지컬·오페라에 대한 친숙도를 키워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의 760-3345.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제주대 현장실습 기관 참여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체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이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취지로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현장실습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산업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취업연계 증진을 목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실무실습 제도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자연과 학대학과 인문대학 8명의 학생이 7월 한 달간 박물관 자료와 수장고 정리 등 학예업무에 직접 경험하게 된다.

전선희기자

태권도 하나로 세계
UNIFYING THE WORLD WITH TAEKWONDO

2018 JEJU WORLD TAEKWONDO HANMADANG

2018 JEJU WORLD TAEKWONDO HANMADANG

July.28.(Sat) ~ 31.(Tue).2018 | Halla Gymnasium
2018년 7월 28일(토) ~ 31일(화) | 한라체육관

Promoter: KUKKIWON, Jeju 제주특별자치도

Organizer: 2018 제주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
2018 Jeju World Taekwondo Hanmadang Organizing Committee

Patronage: 문화체육관광부, WORLD TAEKWONDO, KTA, TPE, 태권도진흥재단

Sponsor: 우리은행 Woori Bank, TAEKWONFAMILY CO., LTD.

2018 JEJU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2018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018. 7. 18(수)~24(화)
제주 한라 체육관

세계평화의 섬,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가 지구촌 태권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 문성규
2018 제주세계 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장

9단 승단 심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공철국 김완택 박상용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www.jeju-open.org

2018 JEJU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2018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JULY 18. - 24. 2018 7. 18(수)~24(화)
Jeju Halla Gymnasium 제주 한라 체육관

2018 JEJU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